

# 노인의 연령규범과 사회활동 및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죽음준비행동의 조절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Age Norms, Social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Death Preparation Activities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박 선 숙\*

Dept. of Social Welfare, Tongmyo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Park, Sun Sook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초록〉

본 연구는 노인의 연령규범과 사회활동, 그리고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노인의 죽음준비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노인 6,28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연령규범이 긍정적일수록 노인의 사회활동이 유의하게 상승한다. 둘째, 노인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상승한다. 셋째, 노인의 연령규범이 긍정적일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상승한다. 넷째, 노인의 연령규범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활동의 유의한 정(+)의 매개효과가 있었다. 다섯째, 노인의 연령규범, 사회활동, 그리고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인과관계에서 죽음준비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연령규범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죽음준비를 하지 않는 노인이 죽음준비를 한 노인에 비해 그 영향력이 유의한 차이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노인의 삶의 만족도, 연령규범, 사회적 자원과 사회활동, 죽음준비행동

## 〈Abstract〉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structural causality between elderly age norms, social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and to deter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death preparation activities.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or 6,288 people over 65 years old, plus their spouses and children, taken from the '2017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The study found, first, that the more positive the age norms to which the older person subscribes, the more their social activities increase. Second, as these social activities increase,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lso increases. Third, the more positive the age norms to which the older person subscribes, the more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increases. Fourth,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c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e norms of the older person and life satisfaction. Fifth, there i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death preparation activities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ge norms, social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that specifically impacts the age norm-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plans to improve elderly people's life satisfaction are recommended.

**Key words:** elderly life satisfaction, age norm, social resources and social activities, death preparation activities

\*주저자, 교신저자: 박선숙(ssp2124@tu.ac.kr)

##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출산을 저하와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가족에서 노인부양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데 가족의 환경변화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은퇴에 따른 경제력 약화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런 건강악화의 문제, 그리고 배우자나 주변 가족, 친지, 동료의 사별로 인한 인간적 고립감 내지 소외감이라 할 수 있다(정미경, 2018).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의료시설이 충분한 선진국 노인이라 하더라도 후진국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반드시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객관적이고 물리적 조건 외에도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등 심리적 요인이나 노인 자신의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 등도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족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노인들은 사회화에 대한 기대와 사회의 연령규범에 적응하고 행동하면서 적응적인 삶을 보내고자 한다. 사회화(Socialization)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에서의 역할기대를 배우고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익혀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기술을 발전시키는 사회적 학습과정이다. 사회에서 노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의 연령규범이 명확하게 구분될수록 노인들의 보다 쉬운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김진숙 외, 2018), 노인들 스스로도 연령에 적합한 행동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령규범이란 특정 연령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역할의 개인적 대응으로, 집단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정순돌·이미우·정세미, 2017). 일반적으로 연령규범은 특정 연령대에 대한 노동, 결혼 또는 외모나 학습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요구 그리고 이에 대한 개인의 상호작용적 대응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며(구혜경, 2016), 주어진 맥락에서 역할이나 지위를 가진 개인의 표준 또는 전형적인 연령에 대해 널리 공유된 판단으로 설명되고 있다(Barbara, 1996). 노인의 연령규범에 대한 연구는 이금룡(2005) 연구부터 본격화되었으나 노인의 사회활동과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현재 한국 사회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노인층에 대한 사회의 기대나 역할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시점이다. 구혜경(2016)은 현재의 노인은 과거 20-30년 전의 노인과의 건강, 교육수준, 경제수준 등이 더 높기 때문에 과거 노인을 대상으로 수립한 노인 관련 정책들은 이제 가족, 사회, 문화, 산업, 복지, 고용, 참여 등 융합적인 관점에서 재논의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노인에 대한

본인의 인식과 태도인 노인 연령규범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삶 속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재화 되어 있다가 자신의 노화를 향한 태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Levy, 2003), 이러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연령차별을 가져와(Nelson, 2005; Parsons & Mayne, 2001; Posthuma & Campion, 2009; Weiss & Maurer, 2004) 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연령정체성과 나이 늙음에 대한 태도는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Levy, Slade & Kasl, 2002; Spuling et al., 2013; Wurm, Tomasik & Tesch-Romer, 2008; 한지나, 2017)를 통해 노인의 연령규범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 기존의 연구에서 노인의 종사상 지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문정화·강민아, 2017), 노인의 연령규범이 건강(최명숙, 2018)과 삶의 만족도(구혜경, 2016)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활동이론(Havighurst, 1968)에 따르면 노인들은 기존에 해왔던 역할과 활동을 지속하고자하기 때문에 노인의 연령규범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러한 사회활동이 가족관계가 개선과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강종필·윤지영, 2017; 김미혜·정진경, 2003; 남기민·박현주, 2010; 전명진·문성원, 2016)으로 보고되고 있다.

은퇴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노년기에 발달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고자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사회의 노인 연령규범은 그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기에 역부족이다(김수연·원영식·김진원, 2019). 한지나(2015)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건강증진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령규범이 노인의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그동안 노인의 연령규범과 연령정체성이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최명숙, 2018; 한지나, 2017)은 진행되어 왔으나 자신의 연령에 대한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도 노인의 연령규범과 사회활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자원경영학 분야는 고령화 사회 노인돌봄, 지역사회 자원개발, 커뮤니티 케어 등과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노인의 사회활동은 가족자원을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시켜 사회적 자원을 창출하는 자원관리활동과 연계되면서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과 긴밀히 연계된다.

한편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은 가족관계에서 멀어져

사회적 역할 상실을 겪게 되는데 이런 상실감으로 인하여 자신을 비하하고 이로 인하여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 등이 낮아진다(권육상, 2000). 노년기는 죽음과 가장 근접한 시기이기에 노인 본인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정미경, 2018). 죽음에 관한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삶의 끝에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만 삶의 마지막 막을 위한 가능성과 변화의 기회를 얻게 된다(Meier et al., 2016). 이러한 죽음준비과정을 통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인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정미경,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연령규범과 삶의 만족도 관련 변수로 죽음준비행동에 주목하였다. 죽음준비행동은 본인의 죽음을 현실적인 실체로 인식하고, 생태계의 자연섭리의 하나로 인식할 때 나온다고 할 수 있다(길태영, 2019). 즉 노인의 죽음준비행동 여부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죽음 준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박주영, 2008; 길태영, 2019), 농촌 노인의 죽음준비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정미경, 2018)는 연구를 통해 노인의 죽음준비행동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즉 노년기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노인의 발달과제인 자아통합에 이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연령규범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자원인 사회활동의 매개효과와 죽음준비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연령규범과 적절한 사회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찰하여 궁극적으로 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나아가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 노인세대의 다양한 자원관리 및 사회적 자원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삶의 만족도 개념은 Neugarten, Havinghurst & Tobin(1961)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통상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또는 감성적 평가를 의미한다(Gilligan & Huebner, 2007).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단순한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구의 만족, 심리적 행복과 기쁨, 사회적 성취감, 일상생활에서의 행복과 기쁨 등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태도로 보고 있다(Neugarten et al., 1961).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하고(남기민·박현주, 2010; 문정화·강민아, 2017), 건강상태(박금화·최영희·남철현, 2008; 오윤정·권윤희, 2012)나 경제적 요인(강종필·윤지영, 2017; 문정화·강민아, 2017)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심리정서적인 요인으로 자존감, 우울 및 자살생각(조계화·김영경, 2008; 남기민·박현주, 2010; 김새봄·최송식·송영지, 2019), 인간관계에서는 가족관계(이준상·김향아, 2017)와 사회적지지(강종필·윤지영, 2017), 그리고 사회활동(김미혜·정진경, 2003; 전명진·문성원, 2016) 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노인 개인의 특성과 태도와 인식,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Berg, 2008) 이에 대한 척도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최성재(1986)는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미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정의하였으며, Bowling(1990)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에 근거한 판단으로 하였고, 최아름과 정홍주(2013)는 경제, 사회, 신체, 심리적 요소를 중시하였고, 정세희와 문영규(2014)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목표와 욕구달성에 대한 노인 자신의 주관적 평가로 정의하였다. 한편 신승배와 박지연(2015)은 경제상태, 건강상태,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를 삶의 만족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파악하였다.

### 2. 노인 연령규범과 사회활동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적절함과 적절하지 않음의 기준을 제공하고 이 기준에 따라 개인을 규정하는 한편, 사회구성원은 이 기준에 따른 역할과 행동을 기대한다(Harris, 2005). 사회 규범들 중 사회 구성원들의 연령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과 역할들을 연령규범이라 한다(Neugarten, Moore & Lowe, 1965; Esser, 2005; Moen, Sweet & Swisher, 2005). 규범은 일반화된 타자와 개인 규범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며 이를 통해 다시 환원되고 재구성된다(이금룡 2005). 즉, 연령규범은 삶의 사회적 시간(Neugarten et al., 1965; Chung & Jung 2013)인 동시에 삶의 연대기적 시간에 의해 형성된 규칙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Harris, 2005).

Riely, Johnson & Foner(1972)의 연령계층화이론(age stratification theory)에 따르면 생애경로(life course)와 역사적 환경이 개인의 사회적 규범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 동일 세대에 출생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생애경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특정 연령집단들의 사회적 역할수행 능력이나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에 동질성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즉, 동일세대의 사

람들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지각하고, 그러한 지각에 따라 자아가 형성되며, 자신에 대한 이런 규정방식은 스스로의 행동을 다시 규제하게 되어 공통적인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Kyuers & Bengston(1973)의 사회와해 이론(social breakdown theory)과 일치되는 면이 있다. 규범 형성과정에서 이론은 노년기 연령규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일 경우, 노인들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기 어렵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노년기의 사회·심리적 능력은 점차 감퇴되어 가며, 결과적으로 노년기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준다(이금룡, 2005).

이금룡(2005)은 노년기의 연령규범을 분리이론과 활동이론으로 설명하였다. 분리이론은 노인들의 신체적 노후화 등 삶의 주기에 따라 지금까지 자신이 수행해왔던 생산적 역할에서 분리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도 저하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한편 활동이론은 노인들이 생애주기에서 겪는 역할 상실과 고령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할과 활동을 계속 추구하는 등 노년층에 맞는 새로운 역할 및 활동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노인이 어떤 이론의 입장이나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연령규범의 행태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사회적 활동이나 삶의 만족도도 달라질 수 있다.

이승수(2010)는 이금룡(2005)이 개발한 연령규범 하위영역, 즉 일, 가족, 성/혼인, 세대교류, 사회활동, 성역할이 노인의 가치관 또는 정치의식과 이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였으며, 최명숙(2018)은 한국노인의 연령규범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 관계에서 사회참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규범 중 학습과 경제활동이 주관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며, 또 사회활동 중 친구관계와 봉사활동이, 연령규범 중 학습과 재혼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구혜경(2016)은 노인의 연령규범 집단별로 6개 삶의 만족도 하위영역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소극형'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진취형'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음을 보고하였다. 노인들의 희망활동 6개 영역에도 '소극형' 노인이 가장 낮았으며, '진취형' 노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의 연령규범이 삶의 만족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구혜경, 2016; 이금룡, 2005), 연령규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노인들은 활동이론에 따라 사회활동이 증가하고(이금룡, 2001; 2005), 사회활동이 증가하면 노년기에 경험하는 역할상실, 즉, 퇴직, 배우자 상실, 부모역할의 상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하여 노년기의 성공적 노후생활을 보장해준다고 보고 있다(Hooyman & Kiyak, 1999; Atchley, 2001; 모선희 외, 2005). 즉 자신의 노령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노인일수록 사회활

동도 왕성해지고,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며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노년기의 상실감은 노인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아진다(권육상,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를 폭넓게 형성하여 인간관계에서 결속력이 깊어지면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다양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환경에서 유래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도 올라간다(권중돈·조주연, 2000).

노년기의 고독 및 역할상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남기민·박현주, 2010; 전명진·문성원, 2016), 봉사활동(김미혜·정진경, 2003)과 노인의 생산적 여가 참여(강종필·윤지영, 2017)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통해 노인의 사회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3. 죽음준비행동과 삶의 만족도

죽음준비(death preparedness)는 죽음에 대하여 준비된 정도(Hebert et al., 2009)로 정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하는 준비나 노력을 의미하며, 잘 죽기 위한 준비, 죽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박지은, 2009; 이영순, 2010; 정순돌·김수현·구미정, 2014; 정미경, 2018)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삶의 철학, 개인의 가치관, 사회문화적 환경, 종교, 철학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죽음을 수용하는 긍정적 태도와 죽음을 거부하는 부정적 태도로 구분할 수 있다(최성재·장인협, 2009). 인생 발달단계의 마지막 노년기는 죽음과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준비와 관련하여 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노년기 발달과업의 하나인 죽음준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정미경, 2018). 특히 건강할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죽음준비를 하는 것은(오진탁, 2004), 죽음 준비과정을 통해 죽음의 부정적 태도를 극복, 완화시킬 수 있으며(김미순·하춘광·김효순, 2011), 죽음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자각으로 인생변화의 전환기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현재 삶에 대한 태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게 된다(오경환, 2007).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Kübler-Ross, 1970) 이에 대한 측정은 쉽지가 않다. 현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노인이나 상대적

으로 젊은 노인의 경우 죽음은 아직 비현실적으로 체감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인의 솔직한 응답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인식의 척도도 주관적 설문조사 응답에 의하는 것보다 실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으로 대체해 조사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수 있다. 죽음준비행동은 크게 '물리적인 측면'과 '심리사회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김향·윤주영, 2017)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죽음준비행동 척도를 물리적인 준비행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리적인 죽음준비행동으로는 '수의준비', '묘지준비', '상조회가입', '유서작성', '죽음준비교육 참여'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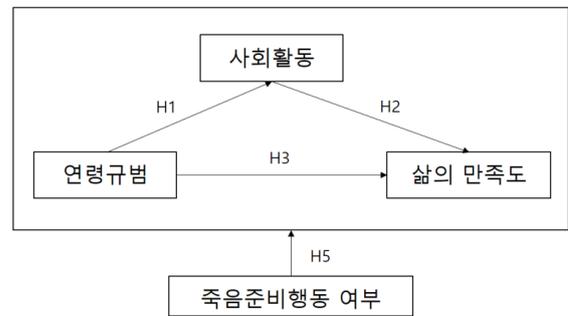
죽음준비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보면 묘지 9.1%, 수의 1.2% 등 사망 후에 필요한 물질적 준비에 그칠 뿐 죽음준비 교육수강(0.6%), 유서작성(0.5%)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노력은 부족하다(정경희 외, 2014). 이처럼 죽음준비도가 낮을 때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유희옥, 2004; 오미나, 2003). 죽음준비행동은 죽음의 순간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점검이며, 의미 있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죽음준비도는 노인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김미순 외, 2011; 정미경, 2018), 죽음준비도는 성공적 노화로써의 자아통합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문남숙·남기민, 2008).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죽음준비행동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노인의 연령규범과 죽음준비행동을 중심으로 노인의 연령규범, 사회활동, 그리고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모형과 이 구조적 관계에서 죽음준비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노인의 연령규범, 사회활동, 그리고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는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죽음은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층이나 건강이 좋은 노인의 경우 자신의 눈앞에 맞이하는 절실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보다 실제 행동으로 노출되는 노인의 죽음준비행동 여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한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성별, 학력, 건강상태, 경제활동여부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간단하게 도형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분석을 위해 2017년 노인실태조사 대상자 중에서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 6,2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0.0과 AMOS 20.0이다. 구체적인 통계방법론으로 첫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변수의 평균과 표준오차, 빈도와 백분율 등 기초 기술통계를 서술하였다. 넷째, 연령규범, 사회활동, 그리고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사회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 방식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죽음준비행동 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위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H1. 노인의 연령규범은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 H2. 노인의 사회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 H3. 노인의 연령규범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 H4. 노인의 연령규범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활동은 매개효과가 있다.
- H5. 노인의 연령규범, 사회활동,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죽음준비행동 여부는 조절효과가 있다.

#### 2. 자료수집과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본은 2017년도 65세 이상 노인 10,299명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노인 6,228명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20007년 1월 노인복지법 제5조 노인실태조사 실시의 법제화를 근거로 매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최근의 조사가 2017년 자료이다.

노인실태조사는 65세 이상 노인 10,2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 설문문항 중에 부부관계, 자녀관계 만족도가 들어 있어 전체 대상 노인을 표본으로 할

수 없었다. 즉 사별, 미혼, 이혼을 한 노인의 경우, 또는 자녀가 없는 노인의 경우는 무응답 결측값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아닌 결측값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들을 표본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만족도 측정도구를 노인의 삶의 만족도 측정문항에서 제외를 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서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측정문항이기 때문에 동반자가 없거나 자녀가 없는 노인의 경우 연구대상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 경우 생기는 문제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높기 때문에 남편과 사별한 고령의 여성노인이 표본에서 제외되는 편이가 존재할 수 있다. 해당사항이 아닌 노인을 표본에서 제외하면 총 6,228명이었으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분류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3450	55.4
	여자	2778	44.6
연령	65-69세	1939	31.1
	70-74세	1805	29.0
	75-79세	1564	25.1
	80-89세	886	14.2
	90세 이상	34	0.5
학력	무학	975	15.7
	초등	2282	36.6
	중등	1200	19.3
	고등	1251	20.1
	2년제 대학 이상	520	8.3
건강상태	매우 나쁨	248	4.0
	나쁜 편	2036	32.7
	보통	1412	22.7
	좋은 편	2372	38.1
경제활동 여부	매우 좋음	160	2.6
	안함	3944	63.3
	함	2284	36.7

전체 노인 중 남자가 55.4%, 여자가 44.6%로 남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5-69세가 31.1%, 70-74세가 29.0%, 75-79세가 25.1%, 80-89세가 14.2%로 비슷하게 나왔고, 90세 이상은 0.5%에 불과하였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면 좋은 편이 3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나쁜 편이 32.7%, 보통이 22.7%, 매우 나쁨이 4.0%, 매우 좋음이 2.6%의 순으로 나왔다. 현재 경제활동 여부에서는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63.3%, 하는 경우가 36.7%로 나타났다.

### 3. 변수의 척도와 조작적 정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통제변수로 성별, 학력, 건강수준, 경제활동여부를 선정하였다. 성별은 남자=1, 여자=2, 연령은 65-69세=1, 70-74세=2, 75-79세=3, 80-89세=4, 90세 이상=5로 범주화하였다. 학력은 무학=1, 초등졸업=2, 중등졸업=3, 고등졸업=4, 2년제 대학 이상=5로 하였다. 건강수준은 1=매우 나쁨, 2=나쁜 편, 3=보통, 4=좋은 편, 5=매우 좋음 등 주관적 건강상태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한편 경제활동 여부는 0=현재 활동 안함, 1=활동함으로 이진변수화 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건강상태, 경제상태,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사회여가활동, 친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에서 전혀 좋지 않음=1, 좋지 않음=2, 보통=3, 좋음=4, 매우 좋음=5 등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고 평균값을 측정값으로 하였다. 연령규범 인식은 재혼, 일, 새로운 것 배우, 외모 치장 등 4개 영역에서 측정하였는데 전혀 좋지 않음=1, 좋지 않음=2, 보통=3, 좋음=4, 매우 좋음=5 등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고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사회활동은 지난 1년 평생교육 참가 여부, 동호회 참여, 친목단체 참여, 정치사회단체 참여, 자원봉사활동 등 5개 영역에서 측정하였는데 참여한 경우=0, 참여하지 않는 경우=1로 이진변수로 한 다음 합을 측정값으로 하였다. 따라서 사회활동 측정값의 범위는 최소값 0부터 최대값 5 사이의 값을 갖는다. 죽음준비는 수의준비, 묘지준비, 상조회 가입, 유서 작성, 죽음준비 교육 수강 등 5개 영역에서 측정하였는데 죽음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0, 한 경우는 1로 코딩한 후 모든 영역에서 죽음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0, 하나의 영역이라도 죽음준비를 한 경우는 1로 이진변수화 하였다.

### 4.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본 연구의 변수로 사용된 연령규범, 삶의 만족도의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사회활동 참여는 이진변수이기 때문에 측정도구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규범에서는 요인적재값이 모두 0.5 이상, 요인의 고유값이 1.912로 1.0 이상, Cronbach  $\alpha$ 값은 0.609로 0.6 이상, 삶의 만족도에서는 요인적재값이 모두 0.5 이상, 요인의 고유값이 2.509로 1.0 이상, Cronbach  $\alpha$ 값은 0.609로 0.6 이상으로 기준값을 충족하였다. 그러나 변동설명력은 연령규범은 47.806%, 삶의 만족도는 41.814%로 모두 5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실태조사의 측정도구 특성상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표 2〉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연령규범		삶의 만족도	
설문문항	요인적재값	설문문항	요인적재값
재혼	.521	건강	.586
일	.686	경제	.679
새로운 배움	.788	배우자	.506
외모치장	.740	자녀	.547
		사회여가	.773
		친구	.744
고유값	1.912	고유값	2.509
설명력	47.806	설명력	41.814
Cronbach $\alpha$	.609	Cronbach $\alpha$	.712

탐색적 요인분석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구조 방정식모형의 측정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표 3〉). 분석 결과 회귀계수는 유의수준 0.001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나 표준 회귀계수를 보면 배우자 관계와 자녀 관계에서 0.4 이하로 나오는 등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설문 문항의 내용상 중요한 측정도구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인과모형 분석에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평균  $\chi^2=3.308$ , GFI=0.998, NFI=0.995, TLI=0.991, CFI=0.997로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표 3〉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변수	잠재 변수	비표준 회귀계수	표준 오차	표준 회귀계수	t 값
재혼		1		0.526	
일	연령	0.714	0.046	0.468	15.518***
새로운 배움	규범	1.036	0.053	0.809	19.392***
외모치장		0.857	0.048	0.567	17.873***
건강		1		0.455	
경제		0.965	0.04	0.503	23.889***
배우자관계	삶의	0.483	0.03	0.320	16.037***
자녀관계	만족도	0.502	0.029	0.367	17.420***
사회여가활동		1.289	0.075	0.685	17.118***
친구관계		1.083	0.065	0.643	16.665***

\*\*\* $p < .001$

## IV. 연구결과

### 1. 측정변수 기술통계

〈표 4〉는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 등 기초 기술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 연령규범에서는 새로운 배움이 평균 3.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 외모치장, 마지막으로 재혼이 평균 2.60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삶의 만족도에서는 자녀관계가 평균 3.87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관계, 친구 지역관계, 사회여가활동, 건강, 마지막으로 경제 만족도가 평균 3.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여부에서는 친목단체활동은 전체 표본의 52.8%, 평생교육활동이 12.7%, 자원봉사활동이 4.5%, 동호회활동이 5.0%, 정치사회단체활동이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죽음준비행동에서 묘지는 전체의 26.9%, 상조회가입이 13.5%, 수의가 6.7%, 유서작성이 0.4%, 그리고 죽음준비교육이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측정변수 기술통계

구성개념	측정변수	평균 or 빈도	표준편차 or %
연령 규범	재혼	2.60	1.12
	일	3.60	0.90
	새로운 배움	3.79	0.75
	외모치장	3.57	0.89
삶의 만족도	건강	3.02	1.01
	경제	3.00	0.88
	배우자관계	3.70	0.69
	자녀관계	3.87	0.62
사회활동 여부	사회여가활동	3.35	0.86
	친구지역관계	3.57	0.77
	평생교육	790	12.7
	동호회	314	5.0
죽음 준비행동	친목단체	3291	52.8
	정치사회단체	31	0.5
	자원봉사활동	279	4.5
	수의	420	6.7
	묘지	1677	26.9
	상조회가입	838	13.5
	유서작성	28	0.4
	죽음준비교육	19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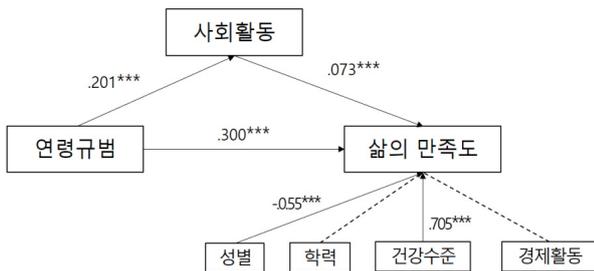
### 2. 인과모형 검증

〈표 5〉와 〈그림 2〉는 연령규범, 사회활동, 그리고 삶의 만족도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이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 통제변인은 성별, 학력, 건강수준, 경제활동 여부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규범에서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beta=0.201(p<.001)$ , 사회활동에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beta=0.073(p<.001)$ , 연령규범에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beta=0.300(p<.001)$ 로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력이 있었다. 즉 노인의 연령규범이 긍정적일수록 사회활동도 유의하게 상승하고 삶의 만족도도 상승하였다. 또한 노인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 삶의 만족도도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가설 H1, 가설 H2, 가설 H3. 모두 채택되었다.

〈표 5〉 인과모형 검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비표준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 회귀계수	t 값
연령규범	사회활동	0.266	0.023	0.201	11.610***
사회활동		0.093	0.011	0.073	8.282***
연령규범		0.507	0.057	0.300	8.875***
성별	삶의 만족도	-0.110	0.017	-0.055	-6.337***
학력		-0.011	0.008	-0.016	-1.375
건강수준		0.720	0.011	0.705	68.460***
경제활동		0.027	0.019	0.013	1.411

\*\*\*p < .001



〈그림 2〉 인과모형

통계변수에서는 성별은 유의한 부(-)의 영향력이, 즉 남자가 여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 건강수준에서는 유의한 정(+)의 영향력이 있었다. 인과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평균  $\chi^2=4.567$ 로 기준치보다 약간 높게 나왔으나, GFI=0.996, NFI=0.992, TLI=0.982, CFI=0.993로 기준치를 만족하여 전반적인 인과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연령규범, 사회활동, 그리고 삶의 만족도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한 표이다. 연령규범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eta=0.300(p<.001)$ , 연령규범이 사회활동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beta=0.015(p<.01)$ 로 유의한 정(+)의 매개효과가 있었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친 총효과에서도  $\beta=0.315(p<.01)$ 로 유의한 정(+)의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가설 H4는 채택되었다.

〈표 6〉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석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A	B	C	A=>C	A=>B=>C	
연령 규범	사회 활동	삶의 만족도	0.300**	0.015**	0.315**

\*\*p < .01

### 3. 죽음준비행동 여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죽음준비행동 여부에 따라 인과모형의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4가지 죽음준비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집단이 전체의 62.7%로 나타났으며, 하나라도 죽음준비행동을 한 집단이 전체의 37.3%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죽음준비행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아니면 6가지 죽음준비행동 중 하나라도 한 노인층이나 모두 연령규범은 사회활동에 정(+)의 영향, 사회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 연령규범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다. 즉 죽음준비행동을 한 집단보다 안 한 집단에서 연령규범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활동의 매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7〉 죽음준비행동 여부의 조절효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죽음준비 안함		죽음준비 함		z
		$\beta$	t	$\beta$	t	
연령 규범	사회 활동	0.21	9.566***	0.185	6.611***	-0.966
사회 활동		0.073	6.663***	0.070	4.716***	-0.453
연령 규범		0.334	7.873***	0.200	4.000***	-2.550*
성별	삶의 만족도	-0.065	-6.142***	-0.034	-2.304*	1.767
학력		-0.016	-1.141	-0.004	-0.207	0.550
건강 수준		0.687	51.843***	0.741	46.606***	1.862
경제 활동		0.018	1.571	0.013	1.411	-0.728

\*p < .05, \*\*\*p < .001

단 t 값을 보면 전반적으로 죽음준비행동을 전혀 안한 노인의 경우가 죽음준비행동을 한 노인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었지만 영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연령규범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죽음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노인은  $\beta=0.334, t=7.873(p<.001)$ , 죽음준비행동을 한 노인은  $\beta=0.200, t=4.000(p<.001)$ , 그리고  $z=-2.550(p<.05)$ 로 죽음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노인이 죽음준비행동을 한 노인보다 유의한 차이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5는 부분적으로 채택이 되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변수의 경우에는 두 노인 집단 모두 성별은 부(-)의 유의한 영향력이, 건강수준은 정(+)의 영향력이 있었다. 즉 연령규범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활동의 매개효과와 죽음준비행동의 조절효과는 남자노인이면서 건강할수록 영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경영학적인 차원에서 노인의 사회적 자원인 사회활동이 노인의 연령규범과 삶의 만족도 간에 매개효과를 갖는지 파악하고, 이들 관계에서 죽음준비행동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17년 노인실태조사 대상인 10,299명 중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노인 6,28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방정식의 인과모형을 적용한 결과 노인의 연령규범은 사회활동에 정(+)의 영향력이 있었고, 사회활동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력이 있었다. 또 연령규범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었다. 즉, 노인들이 자신의 연령층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사회활동도 유의하게 증가하며, 증가한 사회활동은 다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활동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권중돈·조주연, 2000; 이금룡, 2001, 2005; 남기민·박현주, 2010; 구혜경, 2016)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노인에게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간주되는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를 사회적관계망으로 하여 가족돌봄의 사회화를 주장한 유영미와 김성희(2019)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즉 노인의 가족과 친구를 통해 긍정적인 연령규범을 형성하고 이는 사회관계 확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가족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의 사회활동은 연령규범과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한 정(+)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연령규범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이 있지만 사회활동 증가로 인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의 연령규범이 사회참여를 통해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명숙(2018)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인의 사회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관리와 가족자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자원경영학의 주된 연구영역인 생활시간과 관련한 조희금(2019)의 연구에서 일 중심형의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여가 중심형의 노인이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토대로 노인의 특성에 따라 사회활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연령규범과 더불어 사회활동에 대한 집단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노인의 연령규범, 사회활동,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노인의 죽음준비행동 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노인의 연령규범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죽음준비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노인이 죽음준비행동을 한 노인에 비해 연령규범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긍정적인 연령규범을 가진 노인의 어떠한 죽음준비행동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가족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과 평생교육을 통한 죽음준비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죽음준비행동 및 교육활동은 사회적 자원으로서 작용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를 살펴보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노인의 연령규범이 매우 중요함이 드러났다. 연령규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들(Karpinska, KHenkens & Schippers, 2013; Nelson, 2005; Parons & Mayne, 2001; Posthuma & Campion, 2009; Weiss & Maurer, 2004; 정순돌 외, 2017)에서는 직장에서의 고령자에 대한 연령고정관념으로 인한 차별적 접근으로 연령규범을 정의하고 있으며, 연령규범을 통해 적절한 은퇴 시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Van Solinge & Henkens,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규범이 노인의 직업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노인들 스스로 자신의 연령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전반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역할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노력은 가족이나 노인 개인에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반영하여 청·장년기 세대들과의 통합적인 노력으로 연령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에 반영하여 노인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연령규범의 긍정적 변화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기도 하지만 노인의 사회활동을 자극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더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의 활발한 사회활동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들(강종필·윤지영, 2017; 김미혜·정진경, 2003; 남기민·박현주, 2010; 전명진·문성원, 2016)과 같이 노인의 연령규범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노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고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Barbara(1996) 역시 연령규범은 사회적 맥락과 동시에 커뮤니티나 직업 조직을 통해 조기에 이러한 인식이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주로 대중매체에 의해 형성되고 재생산되어 담론화 되는 특성이 있다(김수연 외, 2019). 따라서 방송이나 SNS를 통해 노인들의 젊은 모습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소개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나 복지시설에서 젊은 세대와 상호작용하는 연령통합(age-integrated)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령규범이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Barbara(1996)의 연구와 같이 노인이 자신의 위치에서 전형적이거나 비전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령 분포의 변화에 따른 연령규범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변인을 파악하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성공적 노화이론을 기반으로 한 질적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편 이와 같은 노력은 죽음을 준비하는 노인보다 죽음 준비를 하지 않는 노인, 즉 아직 자신의 삶에 더 집착하고 자신의 죽음을 자연적인 순리로 받아들이기 힘든 노인들에게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질적 죽음준비를 한 노인의 삶의 질이 죽음준비를 하지 않은 노인 삶의 질보다 낮게 나온 문남숙과 남기민(2008), 김미순 외(2011), 정미경(2018)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이들의 연구에서 죽음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측면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는 정신적 죽음준비도는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 및 성공적 노화로서의 자아통합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재산·수의·영정사진·장지·장례유형 등의 의례적(물질적) 죽음준비도는 삶의 질과 죽음불안 및 성공적 노화로서의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노인들이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하여 본인의 죽음을 예견할 때 가족에게 재산분배 등의 물질적인 죽음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의욕 저하와 상실감이 삶의 만족도를 낮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노인의 죽음준비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에 정신적 죽음준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물질적 죽음준비의 의미를 드높이는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노년기 이전부터 또는 건강할 때부터 노인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박주영(2008)의 연구에서 물질적 죽음준비가 경제상태 만족도와 사회·여가·문화 활동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죽음준비행동은 삶의 만족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환경이나 가족관계 등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삶의 만족도 유형에 따른 연령규범과 사회활동, 죽음준비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노인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죽음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별한 가족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Barry, Kasl, & Prigerson, 2002; Hebert et al., 2006; Hebert et al., 2009; Hauksdóttir et al., 2010), 죽음에 대한 준비행동은 사별가족에게 장기간의 심리적 위험을 줄이고 그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Hauksdóttir et al., 2010). 또한 노인의 죽음준비가 사회적 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대경과 이현심(2018)의 연구와 같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및 이웃들과 함께 모두를 위한 지지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에 노인만을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과 노인을 위한 죽음교육을 다각적으로 진행하여 죽음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죽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현재 경험하는 노인의 삶에서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인지시키고 교육하는 것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최근 연명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죽음이라는 명제를 두고 자신의 삶과 가족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들이 도출되고 있다. 노인들은 가족이라는 자원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교육의 실시와 노인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족자원경영학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 측정영역에서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여성이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노인층에서도 고령층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 독거노인이 많아 표본에서 다수 제외되었다. 이로 인하여 표본추출에서 편의가 존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한편 죽음준비행동의 경우 죽음에 대해서는 노인의 태도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연령에 따라 죽음준비행동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즉 노인층 중에서 젊은 층은 자신의 죽음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노인층 중에서 초 고령층은 자신의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닥친 현실문제이기 때문에 죽음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죽음준비행동에서 이와 같은 혼재적인 효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이 자신에게 가지는 삶에 대한 가치와 태도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여 향후 노년기 이전부터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보다 활기찬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은 노인의 연령규범과 사회활동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죽음준비행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가 높다.

한편 노인의 연령규범과 죽음준비행동은 시대적 상황과 노인들의 인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세대를 구분하여 코호트 별로 분석한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 세대별 차이와 연령의 변화에 따른 종단연구 등의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가족자원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에 가족관계와 경제적 자원 및 생활자원과 관련한 가족자원 경영학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강종필·윤지영(2017). 다층모형을 활용한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생산적 여가참여와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5), 89-98.
- 2) 구혜경(2016). 우리나라 노인 정책 방향 제언을 위한 탐색적 연구: 노인 연령 규범과 희망활동의 융복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4), 101-110.
- 3) 권육상(2000). 노인생활건강. 유허출판사.
- 4)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5) 길태영(2019). 한국노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질적 해석적 메타통합의 적용. 노인복지연구, 74(2), 193-218.
- 6) 김대경·이현심(2018). 노인의 심리사회적 지지, 죽음준비도, 자아통합감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11), 433-441.
- 7) 김미순·하춘광·김효순(2011). 내세관과 죽음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1), 111-136.
- 8) 김미혜·정진경(2003). 노인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헌신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221-243.
- 9) 김새봄·최송식·송영지(2019). 재난피해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의 조절효과. 노인복지연구, 74(2), 9-34.
- 10) 김수연·원영신·김진원(2019). 노인의 운동실천이 연령 규범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2(2), 1-19.
- 11) 김진숙·여익구·박희숙·김미숙(2018). 노인교육론. 공동체.
- 12) 김향·윤주영(2017). 지역사회 노인의 죽음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가정간호학회, 24(3), 264-274.
- 13) 남기민·박현주(2010). 노인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0(49), 405-428.
- 14) 모선희, 김형수, 유성호, 윤경아(2005).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15) 문남숙·남기민(2008). 노인의 죽음준비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 -우울 및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4), 1227-1248.
- 16) 문정화·강민아(2017). 노인의 종사상 지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수준, 건강수준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정책, 44(1), 79-103.
- 17) 박금화·최영희·남철현(2008). 노인의 삶의 질을 위한 건강 만족도와 관련 영향요인. 대한예방의학회지, 12(3), 157-173.
- 18) 박주영(2008). 죽음준비가 노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박지은(2009). 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죽음에 대한 정서인 지 행동에 미치는 효과. 사회복지실천, 8, 79-109.
- 20) 신승배·박지연(2015).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아시아여성연구 54(2), 7-46.
- 21) 오경환(2007).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서울시 마포구를 사례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2) 오미나(2003).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자아존중감, 죽음불안 및 우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3) 오윤정·권윤희(2012). 일부 농촌 주민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 관련요인.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지, 37(3), 145-155.
- 24) 오진탁(2004). 죽음, 삶이 존재하는 방식. 청림출판.
- 25) 유영미·김성희(2019).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1), 1-16.
- 26) 유희옥(2004). 중·노년기의 죽음 불안태도.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7) 이금룡(2001). 한국노인의 사회활동. 한국성인교육학회, 5(2), 1-22.
- 28) 이금룡(2005). 한국사회이 노년기 연령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1), 143-159.
- 29) 이승수(2010). 노인의 정치참여의식 및 이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0) 이영순(2010). 노인의 죽음준비와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1) 이준상·김향아(2017). 노인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2(2), 27-36.
- 32) 전명진·문성원(2016). 노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노인 비교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28(2), 153-172.
- 33) 정경희·오영희·강은나·김경래·이윤경·오미애·김세진·이선희·이석구·홍송이(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4) 정미경(2018). 일 농촌지역 노인의 죽음준비도와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간호학회지, 13(1), 3-19.
- 35) 정세희·문영규(2014).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4(4), 59-79.

- 36) 정순돌 · 이미우 · 정세미(2017). 연령규범과 고령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관계: 고용서비스 인지의 조절효과. *조사연구*, 18(3), 47-76.
- 37) 정순돌 · 김수현 · 구미정(2014). 죽음관련 요인과 죽음준비의 관계: 예비노인과 베이비부머의 비교. *한국인구학*, 37(1), 131-153.
- 38) 조계화 · 김영경(2008). 한국노인의 우울, 자살생각 및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2), 176-187.
- 39) 조희급(2019). 농촌노인의 생활시간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2), 41-59.
- 40) 최명숙(2018). 한국노인의 연령규범과 사회참여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춘계학술대회*, 36-42.
- 41)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9, 233-258.
- 42) 최성재 · 장인협(2009).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43) 최아름 · 정홍주(2013). 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3, 189-217.
- 44) 한지나(2015). 노인의 연령정체성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2(5), 33-42.
- 45) 한지나(2017). 나이 들에 대한 태도와 연령정체성이 노년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2(3), 47-69.
- 46) Atchley, R. C. (2001).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9th ed.). New York: Wadsworth.
- 47) Barbara S. L. (1996). Organizational Age Norms: Why Is It So Hard To Know One When You See One?. *The Gerontologist*, 36(2), 209-220.
- 48) Barry, L. C, Kasl, S. V & Prigerson, H. G. (2002). Psychiatric disorders among bereaved persons: The role of perceived circumstances of death and preparedness for death.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0(4), 447-57.
- 49) Berg, A. I. (2008). Life satisfaction in late life: Makers and predictors of level and change among 80+ year ol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othenburg, 2008.
- 50) Bowling, A. (1990). Association with life satisfaction among very elderly people living in a deprived part of inner Londo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1, 1003-1011.
- 51) Chung, SD. & Jung, Y. (2013). "Age Norms for Older Adults among Koreans: Perceptions and Influencing Factors." *Ageing and Society*, 1-21.
- 52) Esser, I. (2005). Continued Work or Retirement? Preferred Exit-age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Arbetsrapport, Institutet for Framtidsstudier 9*. Stockholm: Institute for Future Studies.
- 53) Gilligan, T. D., & Huebner, S. (2007). Initi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Adolescent Version.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2(1), 1-16.
- 54) Harris, D. K. (2005). Age norms. *Encyclopedia of Ageism*, 14-15.
- 55) Hauksdóttir, A., Valdimarsdóttir U., Fürst, C. J., Onelöv E. & Steineck, G. (2010). Health care-related predictors of husbands' preparedness for the death of a wife to cancer—a population-based follow-up. *Annals of Oncology*, 21(2), 354-361.
- 56) Havighurst, R. (1968).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NY: David McCay Co. Inc.
- 57) Hebert, R. D., Prigerson, C., Schulz, R., & Arnold, R. (2006). Preparing care givers for the death of a loved one: A theoretical framework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9(5), 1164-1171.
- 58) Hebert, R. S., Schulz, R., Copeland, V. C. & Arnold, R. M. (2009). Preparing family caregivers for death and bereavement. *Insights from caregivers of terminally ill patients*. *Journal Pain Symptom Manage*, 37, 3-12
- 59) Hooyman N., & Kiyak, A. (1999). *Social gerontology: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Boston: Allyn and Bacon.
- 60) Karpinska, K., KHenkens, K. & Schippers, J. (2013). Retention of Older Workers: Impact of Managers' Age Norms and Stereotyp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9(6), 1323-1335.
- 61) Kübler-Ross, E. (1970).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 62) Kyuers, J. A., & Bengston, V. L. (1973). Social breakdown and competence. *Human Development*, 16, 181-201.
- 63) Levy, B. R. (2003). Mind matters: Cognitive and physical effects of aging self-stereotypes.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8B(4), 203-211.
- 64) Levy, B. R., Slade, M. D., & Kasl, S. V. (2002). Longitudinal benefit of positive self-perceptions of aging on functional health. *Journal of Gerontology : Psychological Sciences*, 57B(5), 409-417.
- 65) Meier, E. A., Gallegos, J. V., Montross-Thomas, L. P., Depp, C. A., Irwin, S. A., & Jeste, D. V. (2016). Defining a Good Death (Successful Dying): Literature Review and a Call for Research and Public Dialogue.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4(4), 261-271.
- 66) Moen, P., S. Sweet, & R. Swisher. (2005). "Embedded Career Clocks: The Case of Retirement Planning." In

- Macmillan, R(ed). *The Structure of the Life Course: Standardized? Individualized? Differentiated?* Amsterdam: Elsevier.
- 67) Nelson, T. D., (2005), "Ageism: Prejudice against our feared future self".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07-221.
- 68)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134-143.
- 69) Neugarten, B., J. Moore, & J. Lowe. (1965). Age Norms, Age Constraints, and Adult Socializ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6), 710-717.
- 70) Parons, D. & Mayne, L. (2001). Ageism and work in the EU: A comparative review of corporate innovation and practice. In I. Golver & M. Branine (Eds.), *Ageism in work and employment*, Burlington: Ashgate, 237-254.
- 71) Posthuma, R. A & Campion, M. A. (2009). Age Stereotypes in the Workplace: Common Stereotypes, Moderator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Journal of Management*, 35(1), 158-165.
- 72) Riley, M. W., Johnson, J., & Foner A. (1972), *A Sociology of Age stratification*, Aging and Society 3. NY Russell Sage Foundation.
- 73) Spuling, S. M., Miche, M., Wurm, S., & Wahl, H. (2013). Exploring the causal interplay of subjective age and health dimensions in the second half of life : A cross-lagged panel analysis. *Zeitschrift fur Gesundheitspsychologie*, 21, 5-15.
- 74) Van Solinge, H. & Henkens, K. (2007). Involuntary retirement: the role of restrictive circumstances, timing, and social embeddedness.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 295-303.
- 75) Weiss, E. M. & Maurer, T. J. (2004). Age Discrimination in Personnel Decisions: A Reexamin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8), 1551-1562.
- 76) Wurm, S., Tomasik, M. J., & Tesch-Romer, C. (2008). Serious health events and their impact on changes in subjective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 The role of age and a positive view on ageing. *European Journal of Ageing*, 5, 117-127.

- 투 고 일 : 2020년 10월 03일
- 심 사 일 : 2020년 10월 19일
- 계 재 확정 일 : 2020년 11월 23일